

# 2011년 해외건설, 최소 600억 달러 이상 수주 전망

- 올 연말 700억 달러 수주 달성도 무난할 듯, 연간 수주 기록 이미 경신 -

김태엽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팀장

**20** 10년 해외건설 수주는 10월 현재 578억 달러를 기록하여 작년의 491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경신 중으로 현재의 추세라면 연말경 700억 달러 수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올 연말 700억 달러 수주 '무난' 할 듯

전체 수주 금액 중 중동 지역에서 76%인 438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이는 지난해의 185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올 초 계약에 반영된 186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 수주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수주 비중은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주 건수는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어 공사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102억 달러를 수주하여 2007년 이후 꾸준히 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공사 건수에 있어서는 전체의 62%에 달하는 278건을 수주하여 비록 중동 지역에 비해 건당 공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안정적

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종 투자 개발형 사업의 재개 움직임과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공공 발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각국의 균형 재정 움직임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또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편 태평양·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및 유럽 시장의 수주 규모는 각각 전체의 1~2%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다변화와 더불어 공중 다각화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플랜트 부문은 4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려 전체 수주 금액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연초 UAE 원전 수주와 함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 발주 물량 확대에 따라 수주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플랜트 원천 기술의 확보 노력이 플랜트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별	2009.10.15	2010.10.15	증감률	공종별	2009.10.15	2010.10.15	증감률
계	26,740 (100.0)	57,810 (100.0)	116.2	계	26,740 (100.0)	57,810 (100.0)	116.2
중 동	18,465 (69.1)	43,819 (75.7)	137.3	토 목	4,160 (15.6)	2,927 (5.1)	-29.6
아시아	6,641 (24.8)	10,156 (17.6)	52.9	건 축	6,685 (25.0)	5,371 (9.3)	-19.7
중남미	207 (0.8)	1,501 (2.6)	625.1	플랜트	14,915 (55.7)	47,286 (81.7)	217.0
아프리카	949 (3.5)	670 (1.2)	-29.4	기 타	980 (3.7)	2,226 (3.9)	127.1
기 타	478 (1.8)	1,664 (2.9)	248.1				

건축, 토목 분야는 각각 54억 달러 및 29억 달러 수주에 그쳐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토목 분야는 2008년 9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큰 폭으로 수주가 감소하였다. 건축, 토목 분야의 경우 단순 도급 공사는 후발 개도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 차이로 수주가 어려운 만큼 고속철도, 도시 개발, 수처리 시설 등의 사업에 파이낸싱을 동반한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기, 통신, 용역 분야는 각각 1~2% 내외의 수주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우선 작년 연말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UAE에서 총 245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년도의 31억 달러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91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였고, 쿠웨이트에서도 49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이들 3개국을 포함하여 수주 상위 10개 국가들에서의 수주 금액이 488억 달러로 전년도의 225억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내년도 최저 600억 달러 이상 예상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2011년 우리 업체들의 해외 건설 수주는 최근의 상승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여전히 사우디와 UAE를 주축으로 한 중동 국가들이 견인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받치는 데 바탕을 두겠지만, 현재 남아공,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남미 등에서도 원전, 고속철도, 대규모 주택 개발 등 초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수주가 급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2011년 해외건설 수주는 최소 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정부간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인 터키와 남아공 등이 발주하는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성공할 경우 700억~800억 달러를 훨씬 웃돌 수도 있을 전망이다.

UAE 원전 수주에 힘입어 2010년 총 500억 달러의 수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의 경우, 2011년에도 3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하지만 이는 현재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는 터키 원전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00억 달러 내외의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은 고유가 기조 지속과 함께 각국 정부가 5~6년 기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도로, 철도, 전력 프로젝트와 함께 석유·가스시설, 에너지 관련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의 수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 대형 플랜트 공사에서의 유럽 기업과의 수주 경쟁 심화 등에 따라 가격 경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아시아에서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에서 공공공사 발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아시아는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의 성장 지속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아시아 산유국 중심의 플랜트 부문 발주 증대로 2011년 8.6%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GMS 국가들에서 관련 인프라 시설 발주가 본격화되는 한편, 인도에서도 IPP 및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전통적인 동남아 중심권 국가에서도 전년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에서는 현재까지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 규모가 작고 재정 상태가 취약하여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수주는 미미한 상황이지만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우간다 등 산유국과 DR콩고, 카메룬 등 천연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10년 말부터 주빌리 유전에서 석유 생산이 시작된 가나의 경우 우리 기업이 대규모 주택 개발 및 플랜트 공사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국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차관 공사와 함께 자원 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시설 개발, 대형 주택단지 건설 등에 우리 업체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부터 다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1년에는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요 확대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각종 플랜트 및 인프라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및 인프라 시설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남미 최대 건설시장인 브라질의 경우 현지 업체의 경쟁력이 높은 데다, 멕시코 최대 발주처인 국영석유공사, 연방전력청 등이 국제 입찰 참가를 FTA 체결국 업체에 제한하고 있어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해외건설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 특히 거세지고 있는 각국의 재정 건전화 움직임으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 해외건설은 중동을 중심으로 쌓아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시장 다변화와 공종 다각화를 통해 해외건설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다. 앞으로 원전, 고속철도, 물산업, 자원 개발, 환경 플랜트 등의 분야에 금융, 인력, 기자재, 기술 및 한국 문화와 상품까지 아우르는 토털(total) 솔루션 수출 산업으로서 해외건설 연간 수주 2,0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CERIK